DOI http://dx.doi.org/10.14380/AHF.2017.45.79

외교와 미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명 외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김홍대

Ⅰ. 머리말

金弘大
中國 河南理工大學 副教授
中韓美術研究所 所長
中國國立清華大學 博士
중국·한국미술사

조선시대 명 외교관과 대명 조선 외교관은 새로운 미술 전파나 교섭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행 중 양국 미술 문화가 직간접적으로 교류되는 장을 적지 않게 연출했다. 이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연구성과도 비교적 풍부하다.[1]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사행'이라는 주제와 '그림'이라는 매체에 집중해 관련된 사항을 미술 양식이나 내용, 기법, 구도, 형식 등 미술 내부적 시각으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2] 사행을 '외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 것은 희소할 뿐 아니라, 공예품과 미술품이 외교 활동에서 차지했던 기능에 집중해 그 의의나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문은 1392년부터 1636년까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명 외교와

---

* 본 연구는 2015년도 중국교육부 인문사회프로젝트(中國教育部人文社會科學項目的階段性成果 項目號 15YJA76001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 필자의 최근 논저: 「外交與美術-以中國使臣記錄中的韓國美術史料為中心」, 『美術與設計』, 2017. 3; 『중국미술사연구 입문』, 한국학술정보, 2013.

1 사행과 사신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김홍대, 「주지번의 병오사행(1606)과 그의 서화 연구」, 『온지논총』(2004. 11), pp.257-304; 정은주, 「1634년 명 사신 영접과 〈황강연조도〉」, 『정신문화연구』 3집(2013), pp. 251-286 등 참고. '기록으로서의 미술'이란 관점에서 사행 관련 기록화를 연구한 대표 저서로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관계사』(사회평론, 2012) 참고.

2 중국회화사의 여러 가지 연구 방법에 대해 김홍대 편역, 『중국미술사연구 입문』 (한국학술정보, 2013), pp.15-31 참고.

관련된 기록을 토대로 미술이 외교에서 차지했던 다양한 면모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외교라는 관점에서 미술이 수행했던 역할과 상호작용 그리고 의의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필자가 기획한 '외교와 미술'시리즈 논문 중 한 편임을 밝히며 앞으로 다채로운 주제로 둘 사이 관계를 분석해 미술이라는 매체의 흥미진진한 기능을 살피려 한다.

Ⅱ. 외교에 있어 두 가지 미술 형태

명과 외교에 있어 미술의 구체적 작용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과 명이 평등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사대'를 국정 운영 기초로 삼았던 조선은 명과 외교에서 대국을 잘 섬김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려 했다. 외교와 관련된 미술도 이 기본 역학 관계에서 작용하고 있다.

문관과 환관으로 나눌 수 있는 명 사신은 277년 동안 1년 평균 0.6차례 모두 153번 조선에 파견되었다. 명 외교 사행은 명 멸망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적지 않다.[3] 그 가운데 미술과 관련해 비교적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략 37건 정도다.표1

외교에 있어 미술의 작용과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물로서 미술이다. 이것은 미술품과 공예품이 외교에서 예의 표현으로 건네는 선물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뜻한다. 둘째, 예술로서 미술이다. 예술로서 미술은 외교 활동 과정에서 외교관들이 직접 미술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등 미술품이 외교 활동 중 교류의 중요 주체로 직간접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미술품은 공예품을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위 기준을 바탕으로 명 외교와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내용을 보면 예물로서 미술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명 정부가 조선 정부 및 외교관에 각종 미술품을 선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 정부가 명과 명 외교관에게 미술품을 기증하는 것이며, 끝으로 조선 정부가 원활한 외교 활동을 위해 미술품을 예물로 준비하는 내용이다.

---

3 高豔林, 「明代中朝使臣往來研究」,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5期(2005), pp.70-71.

표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명 외교 관련 미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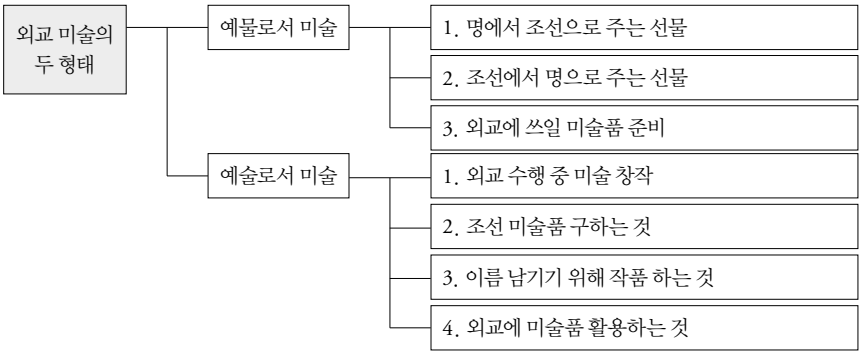
	번호	구분	내용
예물로서 미술	1	명에서 조선으로 주는 선물	『朝鮮王朝實錄』(1419)12月 7日; 『朝鮮王朝實錄』(1423)8月 21日; 『朝鮮王朝實錄』(1425)2月 13日; 『朝鮮王朝實錄』(1450)8月 5日; 『朝鮮王朝實錄』(1464)5月 27日; 『朝鮮王朝實錄』(1481)5月 21日; 『朝鮮王朝實錄』(1450) 1月 5日 ;『朝鮮王朝實錄』(1540)2月 24日; 『朝鮮王朝實錄』(1606)6月 3日
	2	조선에서 명으로 주는 선물	『朝鮮王朝實錄』(1424)9月 19日; 『朝鮮王朝實錄』(1464)5月 27日; 『朝鮮王朝實錄』(1537)3月 14日;『朝鮮王朝實錄』(1537)3月 17日;『朝鮮王朝實錄』(1418)9月 12日
	3	외교에 쓰일 미술품 준비	『朝鮮王朝實錄』(1536)12月 24日;『朝鮮王朝實錄』(1536)윤 12月 28日;『朝鮮王朝實錄』(1537)11月 2日
예술로서 미술	1	외교 수행 중 미술 창작	『朝鮮王朝實錄』(1401)2月 14日 ;『朝鮮王朝實錄』(1401)11月 28日
	2	조선 미술품 구하는 것	『朝鮮王朝實錄』(1431)8月 26日;『朝鮮王朝實錄』(1455)6月 3日;『朝鮮王朝實錄』(1469)8月 25日 ;『朝鮮王朝實錄』(1452)10月 9日;『朝鮮王朝實錄』(1537)3月 3日;『朝鮮王朝實錄』(1537)4月 7日;『朝鮮王朝實錄』(1539)4月 7日;『朝鮮王朝實錄』(1450)1月 11日;『朝鮮王朝實錄』(1450)8月 19日;『朝鮮王朝實錄』(1609)4月 17日;『朝鮮王朝實錄』(1609)4月 28日;『朝鮮王朝實錄』(1539)4月13日
	3	이름 남기기 위해 작품 하는 것	『朝鮮王朝實錄』(1537)3月 14日;『朝鮮王朝實錄』(1606)6月 3日
	4	외교에 미술품 활용하는 것	『朝鮮王朝實錄』(1464)5月 20日;『朝鮮王朝實錄』(1464)5月 27日;『朝鮮王朝實錄』(1539)4月 13日

예술로서 미술은 네 가지로 정리 가능하다. 양국 외교관이 현장에서 미술품을 창작하는 것, 명 외교관이 조선 미술품을 구하는 것,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작품을 하는 것, 외교 활동에 미술품을 직접 활용하는 것 등이다.표2

Ⅲ. 예물로서 미술

외교에 있어 미술이 담당한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술이 예의 표현으로 상징성과 의식성을 대표해 상대국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기록을 보면 명 황실이나 명 외교관이 조선에 각종 미술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떨 땐 황제가 조선 사신에게 직접 전하는 경우도 있었고, 명 외교관이 조선에서 외교 활동 중 미술

표2 외교 미술의 두 형태



품을 기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적 사적으로 많은 순수미술품 및 공예품이 조선에 예물로 증정되었다.

먼저 국가 차원 예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世宗(1418~1450) 원년 1419년 12월 7일 "황제가 기린·사자·복록과 수현사와 보탑사의 상서로운 그림 5축을 하사 하였다." 같은 날 다른 기록을 보면 황제가 하사한 것은 그림만이 아니었다. "어제 서문이 붙은『新修性理大全』과『四書五經大全』 및 황금 백 냥, 백금 5백 냥, 색비단, 채색 비단 각 50필, 새명주 5백필, 말 12필, 양 500마리를 하사하여 별나게 총애하였다."라 적고 있다.[4]

서적은 그 나라 활자체 종류, 정렬 방식, 자간 넓이, 행간 폭, 삽도 삽입 방식 등 각종 그래픽디자인 요소가 총망라된 제품이다. 여러 가지 옷감은 당시 명 수공예 수준을 알려 주는 공산품이다. 황금과 백금은 금전이지만 역시 명 화폐 디자인 체계를 알려 주는 중요한 물품이다. 즉 선물 중 동물을 빼면 모두 미술품이었다.

명 사신이 조선에 도착해 미술품을 예물로 증여하는 일은 더욱 많았다. 예를 들어 세종 5년 1423년 "海壽가 柳靑段子 2필, 草綠段子 1필, 生小絹 3필을 大殿에 바치고, 藍段子·초록단자·朱黃段子 각 1필과 紫綃 3필을 中宮에 바치고, 남색단자·초록단자 각 1필과 生綃 3필을 東宮에 바쳤다."라 한다.[5] 모두 명 대표 수공예품이다.

1425년엔 "正使 尹鳳(?~?)이 임금에게 단자 2필, 白畫絹 1필, 沙糖·龍眼·荔

4 "皇帝就賜麒麟, 獅子, 福祿, 隨現寺, 寶塔寺祥瑞之圖五軸; 特賜御製序新修《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及黃金一百兩, 白金五百兩, 色段羅彩絹各五十匹, 生絹五百匹, 馬十二匹, 羊五百頭以寵異之."『世宗實錄』6권, 세종 1년 12월 7일 丁丑 3번째 기사. 본 논문 중 사용된『조선왕조실록』관련 자료는 한국고전종합DB를 참고했다. http://db.itkc.or.kr (2017년 10월 30일).

5 "海壽進柳靑段子二匹, 草綠段子一匹, 生小絹三匹于大殿; 藍段子草綠段子, 朱黃段子各一匹, 紫綃三匹于中宮; 藍段子, 草綠段子各一匹, 生綃三匹于東宮."『世宗實錄』21권, 세종 5년 8월 21일 己巳 2번째 기사.

枝 등을 바치고, 중궁에게는 단자 2필을 바치고, 동궁에게는 단자·白毛子 각 1필을 바쳤으며, 副使 박실도 또한 임금에게 단자 1필, 백모자 1필을 바치고, 중궁과 동궁에게는 각각 단자 2필을 바쳤다."라 적고 있다.[6] 조선에 보기 힘든 과일도 있지만 대부분 직물인 수공예품이다. 이와 유사한 예는 1450년 8월 5일, 1464년 5월 27일, 1481년 5월 21일, 1540년 2월 24일 기록 등이 있다.

정부 차원 예물 교환 밖에, 명 외교관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기증하는 경우 역시 많았다. 『세종실록』 1450년 윤 1월 5일 기록을 보면 명 외교관 예겸이 "대군과 제군에게 매화를 그린 종이 한 쌍씩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선조실록』 1606년 6월 3일 기록을 보면 柳根(1549~1627)은 朱之蕃(1558~1624)이 《千古最盛帖》을 건네준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또 당시 부사였던 梁有年(?~?)은 3월 28일 《衡山石刻帖》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기록은 당시 조선 외교관이었던 許筠(1569~1618)의 『惺所覆瓿藁』에서 볼 수 있다.[7] 양국 외교관 사이의 선물 증정에 대한 내용은 조선 외교관들 개인 문집에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이 명 정부에 보내는 예물로서 미술품 역시 형식 절차가 있었다. 대부분 수공예품으로 종류는 극히 다양했다. 조공으로 대표되는 형식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 예로 1424년 세종 6년 9월 19일 기록을 보면 "안장 두 벌에 고삐·굴레·다래·鐙子·皮替·汗替·鞍籠·鞭子를 모두 갖추었삽고, 황세저포 20필,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50필, 만화석 20장, 황화석·잡채화석 각 10장, 인삼 1백근, 豹皮 20장, 雜色馬 30필을 갖추었사오니, 위의 물건들이 가짓수가 매우 적고, 제조한 것도 정한 것이 아니오니 어찌 조공의 물건에 충당하오리까마는, 그대로 땅을 맡은 자의 올리는 것을 표할까 하나이다. 중궁에게 진헌하는 예물은 백세마포·홍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10장, 황화석·잡채화석 각기 6장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방물로 표기되는 조선 조공품은 약제, 동물을 빼고 모두 수공

---

6 "正使尹鳳進段子二匹, 白畫絹一匹, 沙糖, 龍眼, 荔枝, 中宮進段子二匹, 宮進段子, 白毛子各一匹, 副使朴實亦進段子一匹, 白毛子一匹. 中宮, 東宮各進段子二匹." 『世宗實錄』 27권, 세종 7년 2월 13일 癸丑 2번째 기사.

7 "宗親宴太平館, 使臣坐東, 宗親坐西. 宴罷, 倪謙各贈大君諸君畫梅紙一雙." 『世宗實錄』 127권, 세종 32년 윤 1월 5일 庚戌 3번째 기사; "正使迎恩門扁額二件, 使之揀擇刻之. 又書慕華館扁額, 館宇修完之後, 刊刻懸之云. 過江之後, 到鎭江, 又送大字七幅, 令臣入啓, 云千古最盛. 令臣題跋, 臣固辭, 到義州留置而去. 臣不得已, 手書跋語于卷端, 送于鎭江, 則正使於病中, 送千古最盛一件于臣處. 管家謂表憲曰: '老爺有此(貼)〔帖〕二件, 知舊諸公, 求者甚衆, 而慳惜不與, 今乃把贈.' 云, 其意蓋欲令臣, 得以獻御云. 正使曾出象牙, 棕木等筆管, 要束筆, 臨行, 與臣十枝, 大字十幅. 千古最盛一帖, 筆十管, 并爲入啓. 敢啓." 『宣祖實錄』 200권, 선조 39년 6월 3일 庚子 1번째 기사; 김홍대, 앞의 논문(2004), pp.257-304.

예품이다. 이것을 통해 보면 예물에 있어 수공예품이 차지했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예는 『조선왕조실록』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8]

이 밖에 조선정부는 명 외교관들에게 갖가지 미술품을 선물했다. 대표적 예는 아래와 같다. 金湜(?~?) 일행이 근정전에서 연회를 열 때 세조는 "都承旨 盧思愼을 시켜 김식 등에게 油煙墨 각각 25자루, 紫石硯朱漆匣筆赤玉具 각각 1벌, 揷筆墨靑石硯 각각 1벌, 畫簇子 각각 4쌍, 咨文紙 각각 1권, 冊紙 각각 50권, 法帖 각각 6부, 刀子 각각 1부, 黑細麻布團領 각각 하나, 白貫苧布帖裏 각각 1부, 黑細馬布帖裏 각각 하나, 白苧布汗帖裏 각각 하나를 주었다."라 기록하고 있다.[9]

명 외교관을 접대하면서 그들에게 조선 미술품을 선물하는 예는 작게는 그림과 서예, 붓, 벼루, 부채, 등잔 등에서 크게는 도자기와 금은 동기 등 여러 가지였다. 그중 그림을 선물한 것으로 1537년 우승지 金亹(?~?)가 그들에게 〈平壤圖形〉 족자를 증여한 예가 있다. 이에 사신들은 "현명하신 임금에 현명한 신하입이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 먼 데서 온 손에게 주다니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대대로 전하는 보배로 삼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사신들은 감사한 나머지 붓을 들어 글씨를 써 주었다.[10]

다른 예로 중종은 1537년 3월 17일 태평관에서 송별연을 하며 명 외교관에게 〈漢江遊覽圖〉를 선물로 주었다. 이에 龔用卿(1500~1563)은 "이는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라 했다. 공 외교관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사행하는 모습을 조선 정부에 그려 달라 직접 청한 적이 있고 정사 본인이 그림에 대한 욕구가 높았기 때문이다.[11]

중종이 선물로 준 〈한강유람도〉는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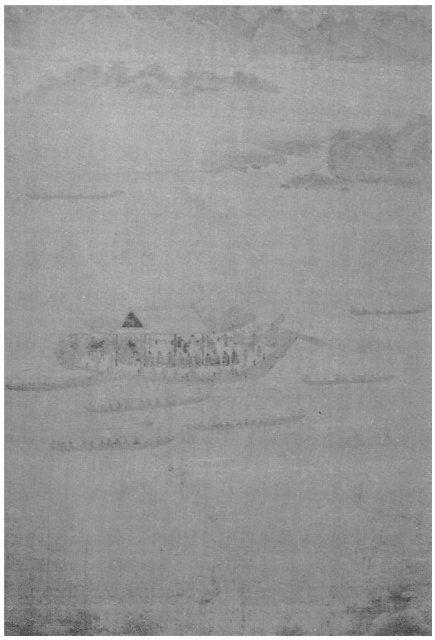
8 "謹備鞍子二面, 鞦轡, 鞓鐙, 皮替, 汗替, 鞍籠, 鞭子俱全, 黃細苧布二十匹, 白細苧布, 黑細麻布各五十匹, 滿花席二十張, 黃花席雜彩花席各一十張, 人蔘一百觔, 豹皮二十領, 雜色馬三十匹. 右件物等, 名般甚寡, 制造匪精, 豈足充旅庭之實? 聊以表執壤之奠. 中宮進獻禮物: 白細苧布, 紅細苧布, 黑細麻布各二十匹, 滿花席一十張, 黃花席雜彩花席各六張." 『世宗實錄』 25권, 세종 6년 9월 19일 辛卯 1번째 기사.

9 "上使都承旨盧思愼, 贈湜等油烟墨各二十五笏, 紫石硯, 朱漆匣筆, 赤玉具各一事, 揷筆墨, 靑石硯各一事, 畫簇子各四雙, 咨文紙各一卷, 冊紙各五十卷, 法帖各六部, 刀子各一部, 黑細麻布團領各一, 白細苧布帖裏各一, 黑細麻布帖裏各一, 白苧布汗帖裏各一." 『世祖實錄』 33권, 세조 10년 5월 27일 己卯 1번째 기사.

10 "臣問安於天使後, 仍以平壤圖形簇子進呈, 兩使大喜稱謝曰: '賢哉王也! 賢哉臣也! 作爲此圖, 以贈遠客, 多謝多謝, 以此爲傳家之寶也.' 上使又曰: '俺等以何物而致謝乎?' 將以一筆揮之以進也." 『中宗實錄』 84권, 중종 32년 3월 14일 癸巳 5번째 기사.

11 "上以漢江遊覽圖呈之, 兩使曰: 此乃無價之寶." 『中宗實錄』 84권, 중종 32년 3월 17일 丙申 11번째 기사.

1
전 이상좌
《행행도》 제3폭
국립중앙박물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行幸圖》를 보면 그 형식과 내용을 대략 살필 수 있다.도1 전 李上佐(?~?)필 네 폭 그림은 모두 부감 형식으로 명 외교관들의 한강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제3폭은 한강에 배를 띄우고 유람하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浮金이라 불리는 큰 배는 붉은 기둥 위에 지붕이 있고, 배 안에는 음악과 무용을 즐기는 빨간 옷을 입은 명 외교관과 조선 관리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접대하기 위해 분주히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부금 주위는 길고 작은 조선 관리들이 탄 배가 호위하고 있는데, 당시 유람 규모와 떠들썩한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다. 제4폭 역시 제천정 연회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생동적으로 그려놓았다.

그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선물이다. 조선 입장에서 보면 궁중화원을 활용하면 다른 선물보다 경제적 손실을 덜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의 문화적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이기도 했다. 외국 외교관 입장에서 보면 그림은 휴대하기 편할 뿐 아니라 자국에 없는 특이한 형식의 그림은 문화적 가치와 독창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외교 행적을 기록화 형식으로 제작했기에 더욱 생동감 있게 외교 과정을 설명하고 기억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迎詔圖〉는 특별한 매력을 가진 선물이었음에 틀림없다.

명 외교관들에게 보내는 선물 중 공예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높았다. 대표적 예로 1418년 세종이 太平館에 거동하여 사신을 전별할 때, "가는 베(細布)·貂裘·豹皮·獺皮·인삼·두꺼운 종이(厚紙)·큰 화살(大箭)·활집(弓韔)·矢房·石燈盞·襲衣를 선물로 주었다."[12]

12 "上幸太平館餞使臣, 贈以細布, 貂裘, 豹皮, 獺皮, 人蔘, 厚紙, 大箭, 弓韔, 矢房, 石燈盞, 襲衣." 『世宗實錄』 1권, 세종 즉위년 9월 12일 己未 2번째 기사.

흥미로운 것은 조선이 명 사신들에게 주거나 그들이 직접 요구하는 공예품 중 석등잔이 의외로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석등잔은 조선 특산품으로 그 형태가 아름답고 실용적이어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 현재 동국대박물관 소장인 석등잔을 보면 당시 조선이 명 외교관에게 선물로 주었던 형태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도2 흰색 대리석으로 만든 석등잔은 곡선이 부드러운 반구형으로 바닥이 평평하다. 그리고 구연 밑에 구멍을 뚫어 등걸이를 걸게 디자인되었다. 대·중·소 크기로 나뉘는 석등잔은 인기가 좋아 많은 사신들이 청하는 공예품이었다.[13]

2
석등잔
대리석
높이 16.5cm
지름 31cm
넓이 26.5cm
동국대학교박물관

양국 사이 외교에서 예물 증정이 이렇게 활발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은 두 나라 모두 유교를 국정 운영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선 외교 시 예물 교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유학에서 예물은 예를 표현하는 물건으로 '정이 담긴 물건'으로 보았다. 또 예물은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는 '도덕성'이 있다고 여겼다. 즉 예물 교환은 당사자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예물은 '의식성'과 '상징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보았다.[14]

양국 외교 시 중요했던 예물교환에 있어 유가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는 '禮尙往來'이다. 이는 표현성과 균형성을 의미한다. 즉 선물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높이 여긴 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양국 외교에 적용시켜 보면 조공·회사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親親尊尊'이다. 이것은 예물교환의 구체적 형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방법성과 불균형성을 말한다. 즉 신분과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리 예를 표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상하관계가 분명했던 명과 조선을 이 원칙에 근거해 분석해 보면 양국 외교에서 증송하는 미술품의 종류와 양 그리고 횟수가 서로 불평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15]

예물로서 미술 중 마지막은 조선이 외교를 위해 미술품을 선물로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1536년 12월 24일 "天使에게 줄 그림과 글씨를 의논하

13 조선시대 문헌 중 석등잔과 관련된 구체적 쓰임과 묘사는 李德懋, 『靑莊館全書』 51권, 耳目口心書 4 참조.
14 孫邦金·陳安金, 「論儒家的禮物觀」, 『中國哲學』10期(2013), pp.34-40.
15 위의 논문(2013), p.37.

다"라는 기록엔 중종과 여러 대신이 명 사신에게 줄 그림과 글씨에 대해 길게 논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內帑庫에 趙孟頫(1254~1322)의 글씨가 제법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글씨 취향을 논하며, 성종의 글씨는 직계 조상 글씨라 함부로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安平大君(1418~1453)의 글씨가 당시 중국에서 유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대 명필이었던 崔興孝(?~?), 朴耕(?~1507) 등 서법이 묘한데, 이러한 것은 명 사신들이 평소 보지 못했던 것이라 더욱 좋아할 것이라 논하고 있다.[16] 같은 해 윤 12월 28일에도 중종은 三公에게 사신에게 줄 서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17]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병풍을 수리하는 내용도 있다. 중종 32년 1537년 11월 2일 "이것은 龔, 吳 천사가 왔을 적에 쓰고 남은 것으로 만든 12폭의 병풍이다. 이 병풍을 폭마다 분해하여 다시 꾸며서 여덟 족자를 만들어 두었다가 천사가 오거든 각각 4폭씩 주고 나머지 4폭도 꾸며서 족자를 만들어 뒷날의 쓰임에 대비하도록 하라."고 쓰고 있다.[18]

정부 최고 책임자인 임금에서부터 신하들까지 동원되어 명 외교관에게 기증할 미술품을 고르는 것을 보면 미술품이 선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표현함에 있어 미술품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상징성이 외교 행위에 비교적 적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16 "天使若求書, 畫簇, 畫簇, 可令該司畫而粧給矣, 書簇則於內帑, 亦有善筆, 而未知其所寫者之名也. 若天使好其書, 而問寫者之名, 則不可以不知答之. 如趙孟頫之筆, 中國之人, 亦喜見之. 以此書改 粧而贈之何如? 回啓曰: 趙孟頫, 古今能書者. 此人眞筆, 粧而給之固善. 見前謄錄, 〔董越〕回程後, 乃聞成廟善書, (聞)〔問〕遠接使曰: '與安平大君孰善?' 答曰: '優於鎔【安平之名】遠矣.' 越悔曰: '不及在都城時, 親奉手跡而來矣.' 以此見之, 其喜我國之書簇, 亦可占也. 孟頫手跡, 遍滿於中國, 雖不求諸海外, 目已熟矣. 今者畫簇, 已令國人畫之, 書簇, 亦用我國之書似當. 如鎔之書, 名動中國, 若崔興孝, 朴耕等, 書法亦妙. 雖中朝之人, 必喜見之. 大抵天使, 見平日不見之書, 則尤喜也. 臣等之意如此, 故敢啓. 傳曰: 予亦見董越時謄錄, 知天使慕悅成廟之筆. 然而祖宗手迹, 不宜誇耀於中朝之人, 不可以成廟之筆與之. 且孟頫之書, 於中國亦賤, 而不可給, 則當以我國鎔及崔興孝, 朴耕之筆而贈之. 然此等人之書, 雖在於內帑, 而予不知某書爲某人之書也. 內帑書簇, 出送於政院, 則承旨等, 當分辨某人之書以啓." 『中宗實錄』83권, 중종 31년 12월 24일 乙巳 1번째 기사.

17 "前日傳敎云天使書簇贈給事, 今日三公皆會, 請議之. 傳曰: 書簇, 文房物也. 贈給無妨, 故前以內藏簇子, 出示申公濟則云: '乃是成廟御筆也. 此書, 不可給也. 民間必有瑢之所書簇子, 求而給之何如?' 且前日禮曹所啓, 世子進爵後坐次, 并議啓. 領議政金謹思等議啓曰: 其爲成廟御筆, 未可的知也, 然疑其或爲御筆, 而輕以與人, 未便也. 民間多有瑢書, 可求而給之." 『中宗實錄』83권, 중종 31년 윤 12월 28일 己卯 1번째 기사.

18 "此屛, 逐幅分解改粧, 爲簇八軸, 待天使之來, 各給四幅, 餘四幅, 亦粧爲簇, 以備後用." 『中宗實錄』86권, 중종 32년 11월 2일 丁丑 4번째 기사.

Ⅳ. 예술로서 미술

미술 활동은 외교 현장의 긴장을 완화하며 외교관들 사이를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만드는 작용을 했다. 외교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형태를 통해 조선시대 외교에서 미술의 특수한 기능, 위치 및 효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술을 여기선 '예술로서 미술'이라 부르기로 한다.

첫째, 명 외교관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진상하는 내용은 1401년 陸顒(?~?)이 태종 앞에서 〈江楓釣叟圖〉를 그려 바치고 절구를 적었다는 내용이나, 1401년 "사신 祝孟獻(?~?)이 무일전 잔치에서 족자 두 쌍을 그려서 바쳤다."라는 기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19]

외교 현장에서 미술은 때로 양국 외교관들이 의사를 교환하는 소통 도구 역할도 했다. 좋은 예가 1606년 주지번의 사행을 기록한 곳에서 확인된다. 1606년 4월 15일 명 외교관이 한강을 유람한 모습을 도승지 尹昉(1563~1640)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양사는 酒量이 엄청났는데 몇 차례 술잔이 오고 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취하고 나서는 빙 둘러서서 마시기도 하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마시기도 하였는데, 신들과 손을 맞잡고 서로 스스럼없이 대하는 것을 보노라니 마치 우리나라의 친구들끼리 서로 만날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조롱 섞인 말도 섞어가며 웃고 즐겼는데, 붓을 잡고 글씨를 써가며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가며 의사를 소통하는 등 술이 흠뻑 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20] 말이 통하지 않아 문자로 의사를 소통하던 시기 글과 그림은 양국 외교관이 의사를 교환하는 좋은 수단이었다. 이 점은 魁齡의 『東使紀事詩略』에 기록된 "문자는 같아도 언어는 달라, 필담이 아니면 그 대략의 의미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21]

둘째, 명 외교관들이 조선 미술품을 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미술품을 구하는

---

19 "陸顒畫《江楓釣叟圖》, 因書一絕云:江風木落影蕭疎, 山帶秋容入畫圖. 有客釣魚人不識, 漢家何處覓狂奴?" 『太宗實錄』 1권, 태종 1년 2월 14일 癸卯 1번째 기사; "宴使臣及監生于無逸殿. 祝孟獻手畫簇子二雙, 且皆著詩以獻." 『太宗實錄』 2권, 태종 1년 11월 28일 壬子 1번째 기사.

20 "兩使卽步至船所, 臣等隨焉乘船. 順流而下, 兩使賞玩風景, 甚有喜色. 船上亦座上行酒, 酒每到兩使, 先引滿擧白, 以示左右, 又令臣等畢飮, 倒巵以相示, 少有點滴, 必令改正以來. 漁人擧網進魚, 兩使卽令作膾以進. 又自廚房作飯, 俱進於宰樞. 兩使酒量甚大, 酒行不記其數, 至於醉後則或環立而飮"; "或箕踞而飮, 與臣等携手相親, 無異我國朋伴間相會之事. 戲笑歡娛, 雜以調弄之語, 或拿筆題語, 或畫筆通話, 備盡醉中形態." 『宣祖實錄』 198권, 선조 39년 4월 15일 癸丑 2번째 기사.

21 殷蒙霞·於浩 編, 『使朝鮮録』下, 『東使紀事詩略』(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p.758.

태도와 방법은 두 가지로, 정중히 요청하는 경우와 강제성이 다분한 경우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 양국 외교가 불평등한 관계였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기록을 보면 명 외교관들이 조선의 회화, 서예, 그리고 공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기로 한다. 조선 초기 명 외교관들과 명 정부는 〈金剛山圖〉를 자주 구했다. 예를 들어 1431년 창성, 1455년 정통의 요구가 있었고, 1469년엔 성지로 청한 적도 있었다.[22] 그리고 드물지만 1452년 金宥(?~?)는 황제에게 보이기 위해 〈賜祭圖〉를 그려 달라 요청했다.[23]

그림을 구하는 예 가운데 원인과 동기가 명확한 경우도 있다. 1537년 명 외교관 공용경은 평양에서 뱃놀이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처럼 좋은 산과 강은 그 경치를 잘 그려 놓으면 좋겠다. 지금 강가에 있는 판장의 그림을 보니 이곳에도 반드시 화공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조서를 받들고 여기에 당도하여 유람할 적에 거마가 길을 메우며 맞이하고 전송하고 하는 광경과 강산의 좋은 경치를 서울에 도착하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시켜 두 장을 그리게 하여,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뒷날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다."고 했다.[24]

좋은 경치와 외교 행사의 장대함을 그려 놓으면, 이후 오랫동안 자신의 외교 활동을 감상할 수 있어 좋겠다는 내용이다. 사진이나 동영상 이전에 어떤 행사나 사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다른 매체로 대체할 수 없는 회화의 매력과 가치가 확실히 드러난다.

공용경은 외교 일정에 있는 좋은 행사를 〈영조도〉로 그려 줄 것도 부탁했다. 1537년 4월 7일 기록엔 "지금 원접사의 書狀을 보건대, 천사가 '근정전'에서 연향에 초청했을 때 우리들이 전하에게 말하기를 이런 아름다운 모임은 다시 얻기 어려울 것이니 이 모임을 소재로 그림을 그려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런 요청을 받은 조선 정부의 반응 또한 신속했다. 기록을 보면 "근정전의 연향에 초청하는 절차는

---

22 "昌盛求修補所齎櫃子十三及金剛山圖, 許之." 『世宗實錄』 53권, 세종 13년 8월 26일 戊午 9번째 기사; "都承旨申叔舟問安于高黼等, 因使畫員安貴生示金剛山圖于鄭通曰: '大人前日請於首陽君, 故殿下命畫工作圖而來.' 通贊嘆不已." 『端宗實錄』14권, 단종 3년 윤6월 3일 丁未 1번째 기사; "遣行上護軍尹岑, 奉表如大明賀聖節獻方物, 并進《金剛山圖》. 太監等以聖旨請之故也." 『睿宗實錄』 7권, 예종 1년 8월 25일 丙子 2번째 기사.

23 "金宥等請, 畫賜祭圖, 以進帝所, 從之." 『端宗實錄』 4권, 단종 즉위년 10월 9일 丁酉 3번째 기사.

24 "天使於平壤, 乘樓船, 稱贊形勝曰: '如此好山好水, 合有好畫模寫. 今觀江上板墻之畫, 此處必有畫手. 須將俺等擎詔到此遊賞, 車馬塡咽候送之形, 及江山勝迹, 到王京, 令善畫者, 繪作二通, 各贈俺等, 以爲後日久玩, 幸甚.' 卽令畫工圖給事, 言于禮曹." 『中宗實錄』 84권, 중종 32년 3월 3일 壬午 1번째 기사.

예방승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즉시 화공을 불러 대궐 안에서 그리도록 하되 친히 감독하여 정밀하게 그리게 해야 할 것이다." 라 했다.[25]

〈영조도〉에 대한 명 외교관들 관심은 높았다. 1539년 강소성 출신 외교관 華察(1497~1574)은 공용경과 잘 아는 사이였고 시를 잘 지었다. 그 역시 〈영조도〉에 집요한 관심을 보이며 조선에 도착해 〈영조도〉를 보고 싶다 청을 넣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외교적 일 처리는 대단히 정치적이었다. 기록에는 "〈영조도〉 두 폭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더럽거나 훼손된 곳이 있으면 장정을 다시 해서 하송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 신하가 회계하기를 "〈영조도〉는 보통 산수도와 달라 먼저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니 천사가 입경한 뒤에 장정을 다시 해서 주는 것이 옳습니다."또 아뢰기를 "전에는 태자(태자가 탄생했을 때) 한 가지 조서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조서(존호를 올리고 태자를 책봉하는 일)가 오므로 그림을 그린 것이 같지 않고, 군사의 위용과 백관의 반열이 특히 허술한 듯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잘못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또 이번에는 조칙의 내용이 같지 않은데, 천사만 볼 뿐 아니라 그들이 귀국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모두 볼 것이니 이 그림은 도로 들여놓고 새로운 〈영조도〉를 다시 그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26]

이와 같이 조선 정부는 조선의 문명 수준과 문화적 품위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서화 작품의 완성도를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폈는데 그 이유는 1634년 서예 관련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대의 명필이 정서하여 새기게 해서 안목을 지닌 중국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27]

---

25 "今見遠接使書狀, 天使言: '勤政殿請宴時, 俺等告殿下曰: 「佳會難再得. 請以此會, 作圖見贈.」 殿下亦許之, 若於俺等未越江時不及, 則隨後入送可也.' 云. 勤政殿請宴節次, 禮房承旨詳知之, 卽招畫工等, 畫於闕內, 而親監精畫可也. 且當其宴享之時, 天使之有此言, 予似未聞之. 其有聞之者乎? 姜顯回啓曰: 承旨中無一人聞者." 『中宗實錄』 84권, 중종 32년 4월 7일 乙卯 2번째 기사.

26 "天使欲觀《迎詔圖》云. 龔天使時所畫, 若有餘軸, 則下送, 書寫官不足云. 柳耳孫下送可也. 天使無笠, 路上逢雨, 奪着頭目之笠, 而加帽云. 速令造送可也. 天使初問劍水, 則遠接使旣曰虛踈, 而後乃更言曰: 若宿龍泉, 道里隔遠, 恐勞尊體, 請宿劍水. 前後之辭不同, 遠接使似乎失對. 仍以《迎詔圖》二軸下曰: 有汚毁之處, 改粧下送可也. 回啓曰: 《迎詔圖》, 非山水常畫之比, 先送未便, 天使入京後, 改粧而給之可也. 且曰: 前則一詔【誕生太子.】來, 而今則二詔【進上尊號, 冊封太子.】來, 所畫不同, 而軍容之列衛, 百官之侍班, 殊似虛踈, 何以爲之? 傳曰: 畫此之時, 亦有誤畫之說矣. 且今則詔勅不同, 非徒天使所見, 而其還朝也, 華人皆見之, 還入此圖, 而改作新迎詔圖可也. 政院回啓曰: 有誤畫之處, 則當指敎畫員, 而且不得已見形畫也, 請留一軸于外. 傳曰: 如啓." 『中宗實錄』 중종 34년 4월 7일 甲辰 2번째 기사.

27 "黃海監司移文于本曹曰: 姜天使碑文, 將入石印, 送于中朝, 而旣用太學士之文, 則不可以拙手書刻. 似當以一時名筆, 精書以刻之, 勿使取笑於中朝具眼 云. 請擇朝士中能書者, 使之書送. 上從之." 『仁宗實錄』 29권, 인조 12년 3월 15일 辛丑 2번째 기사.

명 외교관들이 구하는 것은 그림뿐이 아니었다. 조선 서예를 갖고자 한 것도 자주 보인다. 1450년 기록에 보면 명 외교관이 태평관 잔치에서 당시 서예에 뛰어났던 안평대군에게 다음과 같이 청했다. "감히 묘필을 청하여 중국에 전하려 합니다." 이에 안평대군은 수십 폭을 써서 종부 판관 황의헌을 시켜 사신에게 주니, 사신이 탄상하기를 마지아니하며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陳謙(?~?)이 글씨로 천하에 이름이 났는데, 필력이 굳세고 활발한 기상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송설옹의 삼매를 얻은 것입니다."라 하였다.[28] 같은 해 명 외교관 윤봉은 倪謙(1415~1479)이 중국으로 가지고 온 李瑢(1418~1453)의 글씨를 보고 명 조정 문인들이 탄복을 하고 있으니 자신도 얻고 싶다고 요청하였다.[29]

金生(711~?)의 〈榮川白月碑〉 역시 인기가 있었다. 熊化(?~?)는 1609년 4월 17일 김생의 글씨를 얻어 달라고 몹시 간곡히 요구하면서 "萬軍門(?~?)이 귀국에 사신 왔을 때 이 비문을 탁본해 갔는데 참으로 천하에 없는 보물이다."라 하였다.[30] 11일이 지난 4월 28일 웅화는 백월비 탁본 5건을 받았다. 그리고 "지극히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또 〈麟角碑〉 탁본을 요청했다. 외교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예술품을 조선에 부탁하고 있다.[31]

공예품 또한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명 외교관 華察(1497~1574)은 짐이 많으면 잡음이 있을 것이라 염려하면서도 친구와 집안사람들 역시 외교관으로 외국에 갔으니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갖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친구들이 바라던 벼루를 몇 개 더 요청했다.[32] 앞서 보았던 석등잔은 명 외교관들이 많이 찾았다. 조선 정부는 때에 따라 그들의 청을 들어 주었고 때로 거절

---

28 "首陽大君代行溫斟宴于太平館. 及安平大君行酒, 使臣曰: '敢請妙筆, 傳諸中國.' 後大君書數十幅, 令宗簿判官黃義軒與使臣, 嘆賞不已曰: '國朝陳謙以書名天下, 遒勁精彩, 殊不及此, 眞得松雪翁之三昧者也.' 各賦詩以謝. 松雪, 趙孟頫號也."『世宗實錄』127권, 세종 32년 윤 1월 11일 丙辰 1번째 기사.

29 "幸大平館, 設慰宴. 安平大君 瑢, 行酒, 尹鳳謂瑢曰: 前日倪謙, 司馬恂, 所齎君之書字, 中朝文士皆嘆服, 予亦望焉."『文宗實錄』3권, 문종 즉위년 8월 19일 庚寅 5번째 기사.

30 "卽者遠接使貽書于臣曰: '天使要得金生所書榮川白月碑甚懇曰:「萬軍門使貴國時, 印此本以去, 眞天下絕寶也」云. 天使如是懇求, 不可不應副.' 所謂白月碑, 未知果在榮川, 請下諭于慶尙監司, 道內金生所書印本, 竝爲印送, 而白月碑則三四件爲先精印, 急急上送(爲當. 但石刻須用毛邊紙, 可以精印, 而外方不可易得, 自應辦色覓得下送)何如? 傳曰: 允."『光海君日記』[중초본] 6권, 광해 1년 4월 17일 戊辰 3번째 기사.

31 "昨日詔使前呈納金生書白月碑印本五件, 則詔使曰: '極好. 且聞貴國有麟角碑云, 願速印畫.' 臣等曰: '此碑南方極遠之地, 恐未及趁時印來也.' 詔使曰: '雖追送於西路不妨' 云. 此碑乃是慶尙道 義興縣所在也."『光海君日記』[중초본] 6권, 광해 1년 4월 28일 己卯 9번째 기사.

32 "俺等受此, 固所未安, 但異國之産也, 家人親舊見之, 則以爲奉使外國, 而多致奇貴也. 然一路負重, 恐人言也. 但俺等被之來, 友朋多有求硯者, 敢請數面."『中宗實錄』90권, 중종 34년 4월 13일 庚戌 8번째 기사.

하기도 했다.[33]

셋째 이름을 남기고픈 목적으로 작품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중종은 경회루 잔치에서 공용경에게 주위 산들과 경회루 앞과 후원 여러 곳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청했다. 명 외교관들은 기뻐하며 붓을 들어 자신들이 지은 산 이름을 썼다. 이것은 두 사신이 사행길에 본 산천과 정자의 이름을 써 이름을 남기길 바란 그들의 뜻을 알고 중종이 일부러 청한 것이었다.[34] 공용경은 정자와 산천에 이름을 지어 편액으로 거는 선례를 남겼다.

유사한 것으로 1606년 6월 3일 반송사 유근이 올린 보고서를 보면 주지번이 영은문과 모화관 편액을 써주고 판각해 달라고 한 기록이 있다. 주지번은 외교 과정에서 조선의 여러 문인들이 요청한 정자 편액이나 묘표 등을 많이 써 자신의 예술적 명성을 조선에 남기려 애썼다.[35] 원래 있던 현판을 떼어 내고 자신이 쓴 글을 판각해 걸라고 시키는 위와 같은 행위는 현대의 시각으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조선시대에 외국 외교관 신분으로 타국에서 망설임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전체적 분위기, 그들의 의도와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현판 글씨를 남긴다는 것은 작품을 통해 이름을 남기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유가 문인들의 핵심 가치관인 '삼불후' 즉 立德, 立功, 立言 중 입언에 속하는 행위다. 즉 훌륭한 학문이나 예술 작품을 통해 이름을 남기려는 것이다. 명 외교관들의 이런 행위는 그들의 글씨를 진귀한 가보로 전하려 했던 조선인들의 적극적 요구와 외국에서 이름을 남기는 일이 더욱 뜻있다고 여겼던 명 외교관들의 실리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명 외교관이 남긴 미술품을 외교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도 많았다. 1464년 조선에 온 명 외교관 김식은 5월 20일 대나무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시를 써서 朴元亨(?~?)에게 주었다. 박원형은 이것을 세조에게 진상하였고, 임금은 화원을 시켜 그림을 모사해 채색을 하게 하고, 또 문신에게 운에 따라 시를 지어라 시켰다.

---

33 "白彦, 求草笠, 弓鞬, 矢服, 大箭, 命與之. 序班崔眞, 求角弓, 磨箭, 大箭, 表紙, 行器, 寢席, 油芚, 海菜, 靑魚, 大石燈盞, 命石燈盞外, 皆與之."『世宗實錄』31권, 세종 8년 3월 17일 辛亥 3번째 기사.

34 "上曰: '在北者白岳, 在西者仁王也. 請大人改名之.' 兩使於一路, 見亭榭山川, 輒改其名, 書大字, 請刻板而掛之, 要以流名, 故上知其意而請之."『中宗實錄』84권, 중종 32년 3월 14일 癸巳 6번째 기사.

35 주지번의 병오사행에 대해서는 김홍대, 앞의 논문(2004), pp.257-304 참고.

세조가 화원을 시켜 그린 그림은 5월 27일 근정전 잔치에 다시 등장한다. 세조가 그림을 꺼내 김식에게 주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대인께서 그림을 좋아하고 시에 능하시기 때문에 화공을 시켜 대나무를 그리게 하고, 문사가 시를 지었으니, 번거롭지만 대인께서 한 번 봐 주시요. 장차 부대인께도 아울러 드리겠소이다." 그리고 왕은 다시 이렇게 말한다. "이 대나무는 바로 대인이 그린 대나무를 본뜬 것입니다." 하자 김식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저는 흰 것을 그렸는데, 지금 이것은 바로 녹색이었으므로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다시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실제로 나의 작품입니다."라 했다.[36]

이 사실을 보면 김식이 그린 그림을 조선에서 외교적으로 더욱 극화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명 외교관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였다. 즉 한 나라 국왕이 자기 그림을 화원에게 모사케 하고, 문인에게 시를 지으라고 하고, 또 표구를 하는 등, 번잡한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것을 통해 김식은 자기 그림의 가치를 보았다. 그 결과 김식은 상당히 유쾌해졌다. 세조는 그림을 외교적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계산된 것이다.

이 밖에 1539년 4월 13일 기록을 보면 "상이 의식대로 술을 돌리고는 공용경이 쓴 경회루 액자를 두 사신에게 보이면서, "이것이 공 대인이 쓴 글씨입니다. 누각 처마에 현판으로 달았었는데, 어제는 장막을 둘러쳤기 때문에 대인들께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글씨는 쓸 줄 모르나 역시 써서 올리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말하기를 "대인들의 필적은 진실로 얻기 어려운 것이라 과인이 보배처럼 간직하겠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를 남겨 두려고 하다가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돌아간 뒤 필적이 남게 된다면 또한 전하를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입니다." 라 했다.[37]

조선 정부는 명 외교관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 주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증송하는 선물의 양과 종류도 매우 많았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왜 명 외교관 접

---

36 "上使朴元亨贈湜畫竹簇子曰: '大人好畫能詩, 故令畫工畫竹, 文士作詩, 煩大人一覽, 將并呈副大人.' 湜與張珹俱謝. 上謂湜曰: '此竹乃摹大人之竹也.' 湜微笑曰: '我畫白而今乃綠, 初不覺, 更諦觀之, 實是我作.'" 『世祖實錄』33권, 세조 10년 5월 27일 己卯 1번째 기사.

37 "上行酒如儀畢, 以龔用卿所書慶會樓額字, 示兩使曰: '此龔大人所書也. 懸板于樓簷, 昨日圍帳蔽遮, 故大人未見爾.' 兩使曰: '知道. 俺等雖不能書, 亦當書呈.' 上曰: '大人筆迹, 固所難得, 寡人當珍藏之也.' 兩使曰: '非爲善寫, 要留筆迹, 但恐取笑耳. 然俺等去後, 筆迹尙留, 則亦是侍殿下一般也.'" 『中宗實錄』90권, 중종 34년 4월 13일 庚戌 8번째 기사.

대에 정성을 다했을까? 그 이유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풀어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선물의 요정(the sprite of gift)'이라는 개념으로 인간들이 주고받는 선물 형태를 설명했다. "선물에 포함된 정감과 영혼은 받는 자에게 심리적인 부담, 정확하게 말해 '심리적 부채'를 준다. 이 부채는 유사한 답례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38] 모스 이론을 조선과 명 외교에 대입해 보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 정부는 후한 접대와 좋은 선물을 명 외교관에게 준다. 둘째, 명 외교관은 상당한 심리적 부채를 갖는다. 셋째, 명 외교관은 이 심리적 부채를 명 조정에서 조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줌으로써 부채를 갚는다.

이상에서 보듯 미술품은 복잡하고 미묘한 외교 현장에서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다양한 용도와 형태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행사를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방면에선 다른 어떤 매체도 대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Ⅴ. 외교에 있어 미술의 작용과 역할

국가 간 사신을 파견해 외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다. 그것은 평화적 방법으로 서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명과 조선이 사신 교환을 통해 외교를 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명 외교관의 핵심 임무는 한편으로 종주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이에 걸맞은 위엄과 명성을 지키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예술적인 교류에 있어 대국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명은 환관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학식이 풍부하고 행동에 범절이 있으며 예술적으로도 재질이 뛰어난 문인 위주로 조선에 외교관을 파견했다.[39]

명 외교관을 접대하는 조선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사신을 유쾌하고 즐겁게 잘 접대해 줌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 양국의 이런 정치적 입장은 1537년 전별연에서 상사 공용경과 부사 吳希孟(?~?)이 중종에게 한

38 馬塞爾·莫斯, 汲喆 譯, 『禮物-古式社會中交換的形式與理由』(商務出版社, 2016), pp.16-19.
39 孟憲堯·孟小瀘, 「明代出使朝鮮使臣類型探討」, 『長春師範學院學報』4(2012), pp.37-42.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상사는 "현왕께서 우리 조정을 성심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라고 했고 오희맹은 "지성으로 사대하여 온 나라를 편케 하고, 전하의 세자들이 대대로 복을 받아 수백 세토록 정사를 해가며 우리 대명과 함께 태평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했다.[40] 오희맹의 말을 분석해 보면 명 사신으로 자국의 핵심 가치와 이익을 모두 확보하면서 한편으로 조선을 위협, 고무,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입장으로 보면 대외적으로 평화로운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 아울러 명의 후원을 얻어 내며, 또 대내적으로는 자신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명분을 보장받고 있다. 명 외교관을 잘 접대함으로써 세 가지 핵심 이익을 한번에 얻을 수 있으니 조선 집권자로서도 후대할 만한 것이다.

미술은 외교하는 전체 과정에서 외교 행위의 중요한 도구였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서화와 공예품은 선물로서 외국 외교관에 증송되는 기능을 발휘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것으로 각종 정자와 누대, 관사는 외교관들이 거처하며 쉬고 연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이런 건축물은 그들에게 시나 문학 작품을 탄생케 하는 직접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건축물은 외국 외교관들이 타국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각적 충격 중 하나로 규모가 크고 가장 완성된 미술품이라는 점에서 외국 외교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대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교관들이 남긴 저서에 사행 길에 있는 각종 건축물 이름이 반복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41]

이 밖에 미술은 예술이 갖고 있는 고아한 면을 외교 현장에서 발휘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1464년 5월 27일 근정전 연회에서 세조가 김식 그림을 다시 그에게 보여 줌으로써 외교 현장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1537년 중종이 공용경에게 각종 이름을 지어 달라고 부탁해 그들이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것 역시 유사한 행위다.

또 미술은 조선의 시각문화와 수공업 제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영접도〉는 당시 명나라에서 보기 힘든 행사 기록화였다. 또 사신들이 찾았던 이용의 글씨나 〈인각사비〉, 김생의 〈영천백월비〉 등은 명에 들어간 뒤 조선의 미술 문화를 알리는 작용을 했다.

---

40 "上使告曰: '賢王待朝廷以誠, 故如此厚待也.'; 副使曰: '至誠事大, 以安一邦, 殿下, 世子, 世世蔓福, 莅政百歲, 與大明同享大平之福, 不勝至願.'" 『中宗實錄』84권, 중종 32년 3월 17일 병신 11번째 기사.

41 金弘大, 앞의 논문(2017), pp.54-58.

다른 측면으로 미술은 사신들이 직접 붓을 잡아 창작하고 작품을 건네는 것으로 명 외교관들의 존재감을 더욱 키워 주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모두 큰 가치와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씨와 그림은 의사교환 수단이나 시각적 기록물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매체도 할 수 없는 기능을 십분 발휘했다. 위에서 보듯 미술은 복잡 다단한 외교현장에서 갖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했다. 미술이 갖고 있는 복합적 면모는 성공적 외교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Ⅵ. 맺음말

미술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국 외교 관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매체였다. 외교에 있어 미술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물로서 미술'이고 둘째, '예술로서 미술'이다. 조선과 명은 모두 유교를 국정 운영 기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문에선 예물로서 미술이 가진 내외적 함의 및 상징성을 유교적 예물관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밖에 유교 선물 교환 원칙을 토대로 조선과 명 사이 예물 교환의 특징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예물로서 미술은 상대 국가에 증송되는 것으로 외교 절차와 외교 형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즉 완성된 미술품을 선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미술의 정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 반면 예술로서 미술은 양국 외교관들이 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술이 직간접적 형태로 외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미술의 동적 성격이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본문에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성격을 양국 외교관이 현장에서 미술품을 창작하는 것, 명 외교관이 조선 미술품을 구하는 것,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작품 하는 것, 외교 활동에 미술품을 직접 활용하는 것,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술의 역할이 외교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그 의의와 가치를 추적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기존 연구가 외교 관련 주제를 그린 미술품의 형식과 내용을 주로 살피던 것과는 연구 방법과 방향이 사뭇 다른 것이다. 이를 통해 명과 조선의 외교가 불평등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명 외교관들이 조선에 여러 가지 미술품을 요구하거나 현판 글씨를 교체시키는 등 현대의 시각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특

히 조선 정부가 많은 미술품을 명 사신들에게 기증했던 이유를 인류학자 모스의 선물 이론을 대입해 설명해 보았다.

미술은 외교 현장에서 때론 소극적으로 때론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논문을 통해 미술이 외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그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주제어 keywords
외교 diplomacy, 미술 art, 조선왕조실록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공예미술 arts and crafts, 예물 gift

투고일 2017년 8월 14일 | 심사일 2017년 9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20일

사료

『세종실록 *The Annals of King Sejong*』

『세조실록 *The Annals of King Sejo*』

『단종실록 *The Annals of King Danjong*』

『중종실록 *The Annals of King Jungjong*』

『선조실록 *The Annals of King Seonjo*』

논저

김홍대 Kim, Hongdae, 「주지번의 병오사행(1606)과 그의 서화 연구 A Study on Zhu zhi fan's Diplomatic Activities (1606) and his Calligraphy and Painting」, 『온지논총 *Onji Studies*』, 11, 2004.

김홍대 Kim, Hongdae, 『중국미술사연구 입문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hinese Art History*』, 한국학술정보 Seoul: Korean Studies Information, 2013.

金弘大 Kim, Hongdae, 「外交與美術–以中國使臣記錄中的韓國美術史料為中心 *Waijiaoyumeishu - yizhongguoshichenjiluzhongdehanguomeishushiliaoweizhongxin*」, 『美術與設計*Meishuyu Sheji*』, 2017.

정은주 Jeong, Eun-joo, 「1634년 명 사신 영접과 〈황강연조도〉 *Hwanggang Yeonjo-do* and Diplomatic Ritual of Ming Envoys in 1634」, 『정신문화연구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013. 3.

정은주 Jeong, Eun-joo,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관계사 *Documentary Paintings of Sino-Korean Diplomatic Relations in Joseon Period*』, 사회평론 Seoul: Sawhepyonglon, 2012.

李德懋 Lee, Dukmu, 『青莊館全書 *Chengzangguanzeunseo*』51, 耳目口心書 4, 1991.

孫邦金·陳安金, Sun, Bangjin · Chen, Anjin, 「論儒家的禮物觀 Lunrujiadeliwuguan」, 『中國哲學 *Zhongguozhexue*』 10期, 2013.

殷蒙霞 Yin Mengxia, 於浩 編 Yu, Hao ed., 『使朝鮮録 *Shichaoxianlu*』下, 『東使紀事詩略 *Dongshijishishilve*』, 北京圖書館出版社 Beijingtushuguanchubanshe, 2003.

馬塞爾·莫斯 Masaier · Mosi, 汲喆譯 Jizhe trans., 『禮物: 古式社會中交換的形式與理由 *Liwu: Gushishehuizhongjiaohuandexingshiyuliyou*』, 北京: 商務出版社 Beijing: Shangwuchubanshe, 2016.

孟憲堯·孟小瀘 Meng, Xianyao · Meng, Xiaolu, 「明代出使朝鮮使臣類型探討 Mingdaichushichaoxianshichenleixingtantao」, 『長春師範學院學報 *Changchunshifanxueyuanbao*』, 2012.

ABSTRACT

Diplomacy and Art
Joseon-Ming Diplomacy fro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Kim, Hongdae

This thesis examines the function and role of art in diplomacy. In diplomacy, art can be categorized into 'Art as a gift' and 'Art as an art'. As 'Art as a gift', art was a symbol of pea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handicraft was widely used as a gift from both countries. Ming sent lots of silk and books, and Joseon used to send special handicrafts such as Joseon paper, silk and stone lanterns. As 'Art as an art', art was a good medium for relax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diplomats, interacting with culture, and enhancing friendship. Diplomats sometimes drew pictures or created calligraphy, and sometimes enjoied art pieces together. This paper is examining how arts played a role in diplomacy of Joseon Dynasty.

This study divided the characteristics of arts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the contents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irst, diplomats of both countries create artworks on the spot; second, that diplomats of Ming dynasty purchase artworks of Joseon; third, someone creates artworks to leave his or her name; and fourth, someone uses artworks for diplomatic activities.

Through this categorization, the present study could see how the roles of arts are specifically revealed in the diplomatic process, and trace their significance and values. This is different from the research method and direction in previous studies, which have mainly focused on the types and contents of artwork that expresses foreign-related themes.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at the diplomacy between Ming and Joseon was unequal.